

시 정 질 문(서면)

박병화 의원

□ 질 문

먼저 부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부천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번째 불법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을 해달라고 절의를 하면서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불법정비라도 하여서 가정을 부양하는 많은 업자들을 생각할 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생각하게 되고 또 특정단체 대변인 같기도 하여서 절의를 하게된 데 대하여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법과 질서가 바르셔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는 생각에 용기를 가지고 절의를 하게 된 점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천에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약 37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분사업조합 부천시지회에 등록된 업체가 212개 업체이고 약 130개 업체는 불법 무허가 업체이고 나머지는 조합에 가입 안하고 개인이 허가를 받은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이전에는 무슨 카센터, 무슨 배터리가게 하면서 불법 무허가 정비를 하였던 업체들입니다. 97년 초부터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동년 10월 이후에는 허가 없이 무허가 정비를 하면 단속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업체 평수가 25평 이상이어야 한다, 매연측정기와 CO측정기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업소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망설이던 중 98년 불법 정비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하여 많은 업소가 IMF시절 경제적 어려움에도 평수가 좁은 업소는 큰 가게로 이사를 하고 매연측정기와 CO측정기를 구입하며 600~1,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서 허가를 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 허가를 낸 업소나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나 똑같이 영업을 하다 보니 허가 난 업소에서는 대한민국에선 법을 지키는 사람은 매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또한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하였는지, 행정지도를 하였다면 몇 번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월에 경기도 조합에서 행정지도 단속을 나와서 허가 업소 및 무허가 업소 ()업소가 단속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단속에 걸린 일부 업소에서는 조합에서 단속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합 부천시회장이 "허가 업소라도 법을 지키지 않

으면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라”, 일부허가 업소와 무허가 업소를 유령단체에서 유혹을 하여 우리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 회원과 협력하여 단 1개 업소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강력 대처한다고 하면서 기존 조합을 분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등록업체라 해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조합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도 힘없이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여러 선배 동료의원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활동을 하면서 몇 번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시민의식이 매우 높아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잘 담아서 집 밖에 내다 놓습니다. 그런데 밤이면 고양이나 개가 쓰레기봉투 속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걸 먹기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찢어놓고 쓰레기를 사방에 흩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도 100ℓ짜리 쓰레기봉투는 무거워서 그러는지 질질 끌고 가다 보면 시멘트 바닥에 쓰레기봉투가 찢어져서 쓰레기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큰 쓰레기는 발로 쓱쓱 밀어서 대충 모이면 손으로 집어서 차에 싣고 작은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한 채 차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차량에는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뒷처리를 깨끗이 하고 가면 여기가 쓰레기를 놓았던 자리인지 알 수가 없이 깨끗할텐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지역전담제가 실시되면서 이면도로는 미화원들께서 청소를 잘 해서 깨끗한 편입니다. 그러나 골목길 하던 미화원들을 없애면서 내집앞내가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골목길은 불법광고물과 담배꽂초 등으로 매우 지저분합니다.

쓰레기수거전담제를 실시하면서 골목길을 청소하시던 미화원을 없애고 청소업체에 골목길 청소하는 용역비를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골목길 청소 용역비를 청소업체에 줄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로 배분하여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러든지, 취로사업을 하시다 중단하신 분들을 고용하여 골목길 청소를 하면 골목길 청소가 잘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다가 혼합수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각 동으로 배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구입한 수거용기가 과연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수거용기도 수거하시는 분들이 잘만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텐데 수거가 끝난 다음에 골목길에다가 그대로 방치하여 지나던 차량이 밝아서 못 쓰게 만듭니다.

본 의원이 양천구 재활용센터에 방문했을 때 양천구 재활용 수거용기는 망으로 되어서 깨지지도 않고 망이 뜰어지면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다음에 더 구입을 하게 된다면 양천구와 같은 망으로 된 수거용기를 구입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장동 쓰레기소각장과 재활용분류센터를 3번 방문을 하면 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재활용분류센터에서 재활용 분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재활용품에는 절대로 쓰레기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어느 사람이고 와서 현장을 보면 느끼는 점이 달라지니 각 동 부녀회원이라든지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분류센터에 견학을 보내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에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사료되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호 의원

□ 질 문

1. 삼천리도시가스 공사의 무분별한 하청업체 선정으로 공사지연 등에 따른 대책은?
2. 각종 채납액 징수대책은?
3. 일반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수거관리체계에 대한 대책은?

강진석 의원

□ 질 문

- 부천시가 소사구 송내동 및 소사동지역 역세권 개발로 인한 공업용지 대체지역으로 오정동 450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오정기술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 위주의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그 추진 사항이 매우 저조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함
- 오정기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가?
- 오정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토공의 경우 향후 분양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사업에 소극적이라고 하는 바 이는 부천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요망

- 부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후 사업체 입주 구상계획은?
-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첨단 대단위 사업체의 경우 일부는 사업장소가 부족하여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앞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는 사업체 자원을 위해 부천시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균형적인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대단위 사업체에 대한 사업장 부지확보 등의 적극적인 장기 지원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장기지원계획을 상세하게 답변바람

류재구 의원

□ 질 문

1. 공무원의 교육, 회의 횟수를 줄일 용의는?

(공무원교육이 시에서만 월 평균 4회, 9월까지 총 37회 실시되었음. 여기에 각종 회의 명목으로 모인 횟수 78회를 합하면 근무시간의 대부분 모임에서 시작하여 모임으로 끝나는 폐해가 계속되고 행정공백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2.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도로굴착 후 포장에 대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재공사 등 개선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 감독에 대한 방법은?

3. 문예회관 건립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문예회관은 한 번 건립하면 반백년을 사용하게 될 것임. 충분한 검토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미래예측, 시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박노설 의원

□ 질 문

- 오정구 내동 282 미래환경산업의 악취로 인한 내동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1. 미래환경산업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경위로 사업허가를 받았는가?
2. 어떠한 폐수를 어떠한 공정으로 처리하는 시설인가?
3.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인가?
4. 그 동안 지도 감독한 실적은?
5.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대책은 무엇인가?

- 오정구 삼정동, 내동 지역에는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삼정동, 내동 지역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 선용을 위해 게이트볼 경기장을 마련해 줄 용의는?

오효진 의원

□ 질 문

이용률이 저조한 시청사 지하주차장을 직원에게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 시는 지금의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시청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 1층 214면, 지하 2층 240면 등 총 4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유료화 이전인 금년도 7월까지 무료로 편히 이용해 왔으나 시내 도로의 주차유료화와 연계하여 시청사 내 지하주차장도 8월부터 유료화로 운영하고 대신 무료인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료화 이후 시청 지하주차장은 유료(정기주차)로 이용하는 직원이 30명으로 전체 차량소유 직원 520명의 5.7%에 불과하며 이용료도 40,000원(10부제시 32,000원)으로 일반인과 같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주차장의 주차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하루에 평균 지하 1층 47대, 지하 2층 15대로, 지하 1층은 21.9%, 지하 2층은 6.3%, 전체로는 13.6%로 이용률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교통수요 억제와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용자 부담완화에 의거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였으나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지하주차장을 이용자가 적어 거의 비워두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닐 수 없으며 개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시청사 내 지하주차장을 적은 봉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처럼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무료 개방이 불가능하다면 시청 직원은 청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의 봉사자임으로 현 이용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종1동 출신 오효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년여 전 원종1동 동민들 앞에서 저를 시의원에 당선시켜 주신다면 부천시에서 어느 동 못지않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동민들은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행태를 보면 과연 나는 동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나 자신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현실에 입각하여 모든 문제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원 신분에 합당하게 부천시민과 본 의원의 지역구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본 의원의 동 현안문제로 있는 TV경마장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시에 강력히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인정할 만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하는 동민들을 대한 때마나 현실범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도시에 신축 중인 여관(일명 리브호텔)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집단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천시의 이같은 입장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였음에도 부천시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러브호텔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공공의 공익보다 우선 할 수 없다는 판단과 그에 대한 입장은 이해할만 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부천시장은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영업 중인 장급 여관은 모두 298개소에 구별분포를 보면 원미구에 134개소, 소사구에 71개소, 오정구에 93개소가 있는데 이 중 본 의원의 동이면서 본 의원의 사무실 앞에는 30여 개의 여관이 있고 이곳에 인접해 있는 태양아파트와 성락아파트, 서립아파트 등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 여관 주차장을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아파트와의 거리는 10m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번 시의 조치를 보면서 나도 이제 동민들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앞서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입장을 얼마만큼 대변해 주실는지요.

이번에 시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는 시가 패소하리라는 예상하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다는데 이로 인하여 시는 엄청난 금액을 변상해야 할텐데 소문에 의하면 한 개의 여관에 100억 대의 손해배상이 예상되는데 이 금액을 시민들의 혈세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답해주시고 이러한 처리방법으로 부천시의 전체 여관에 적용한다면 2조9천8백만원이 있어야 해결되는데 혹시 신도시와 구도시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신도시와 구도시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평등한 행정을 펼치 주실 것을 바라며, 혹 신도시의 아이들은 러브호텔과 인접해서는 안 되고 구도시의 러브호텔과 접해도 좋다는 편견은 없으리라 믿으며 이번 사항이 집단민원에 의한 처리였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몇 명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TV경마장 문제 역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기 쉬워서 러브호텔 못지않은 심각한 실정인 바 이 역시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와 최고 200m 거리 내에서는 여관을 신축할 경우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심의를 받고 해제결정이 난 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여관은 총 몇 개이며 최근 3년 간의 심의내용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학교정화위원회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시청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내용공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러브호텔 문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공정하게 법을 지켜야 하고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시의회를 교묘히 개입시켜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누가 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